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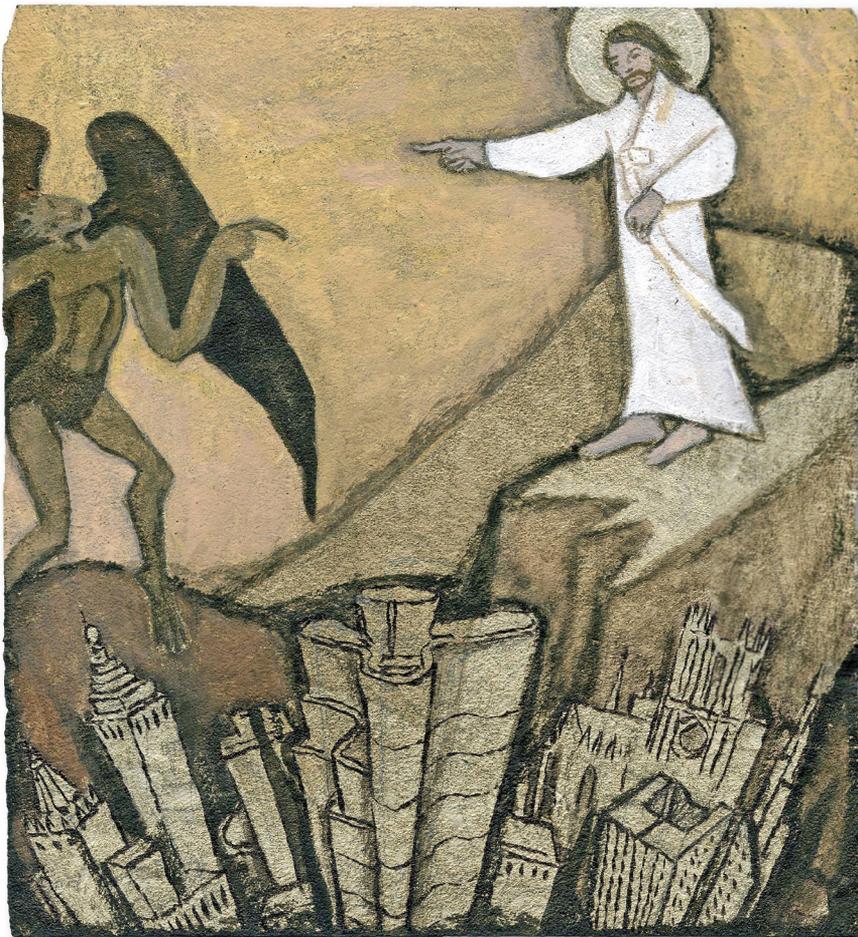
# 대구 주보

사순 제1주일 2017. 3. 5.(가해) 제2041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악마는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의 손길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겸손입니다. \_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창세 2,7-9;3,1-7    **제2독서** 로마 5,12-19 또는 5,12,17-19    **복음** 마태 4,1-11.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성진우 아벨리나리스 신부 | 2대리구청 사목국장

신앙에서 말하는 유혹이란 세상, 육신, 악마(三仇: 영혼의 세 가지 원수)가 인간을 죄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일곱 가지 죄의 근원(七罪宗)에 빠져들기 쉬운 자연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요소로서 교만, 인색, 음욕, 탐욕, 나태, 분노, 질투가 그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이 이 일곱 가지의 범주 안에 거의 다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받아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예언자들조차도 유혹을 받아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복음은 우리 주님마저도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이상하리만큼 달콤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 내 의지가 쉽게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보통 네 종류의 말로써 시작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둘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셋째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넷째는 “이번 한 번 뿐이니까.”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유혹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느님 나라에 못 가게 막아 세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누구에게서라도 배울 점을 찾는 겸손함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란 것이 결국 유혹의 뿌리가 됩니다. 욕심을 이길 줄 알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이기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더욱이 유혹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유혹과 정면으로 맞서 이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이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 교부들은 유혹에 맞서지 말고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악마의 유혹 앞에는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라는 것입니다. 즉 유혹의 기회를 아예 피하는 것이 악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부딪쳐 이기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시고, 피할 수 없는 유혹이라면 오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유혹에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이번 사순 시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궤물**

# 하느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타인은 선물입니다.

사순 시기는 단식과 기도와 자선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을 깊이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 **타인은 선물입니다.**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서 복음은 가난한 이를 훨씬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비참한 상황에서 일어설 힘도 없고, 몸은 종기투성이며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습니다. 가난한 이는 라자로이며 이 이름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 상황에서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라자로를 우리에게 타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명이 선물이기에 환대와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눈을 열어 생명, 특히 취약한 생명을 환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2.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부자가 어떤 모순에 빠져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가난한 라자로와는 달리 부자는 이름도 없이 그저 “부자”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죄에 따른 타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타락은 돈에 대한 사랑에서 허영과 자만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타락의 근원이며, 시기와 갈등과 의심의 원천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무엇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타인에게 과시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도덕적 타락의 가장 저급한 단계는 자만입니다. 부에 대한 사랑으로써 타락한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은 일종의 맹목을 낳는 것입니다.

3. **하느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는 모두 죽었고 이 비유의 중요한 부분은 저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는 저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부자는 고초를 당하면서 비로소 라자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약간의 물로라도 자신의 고통을 줄여 주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라자로에게 요청한 것은 세상에서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바로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는 힘으로 인간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켜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이라는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버리면, 결국 우리는 형제자매라는 선물에 마음을 단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과 성사와 우리 이웃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이라는 선물을 새롭게 찾고, 우리를 눈멀게 하는 죄에서 정화되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회개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 병인박해 순교자현양성당 - 복자성당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리 세 명 천국으로 들어간다.”(복자 허인백 야고보)



대구시 동구 신천동 청구고등학교 아래쪽에 위치한 복자성당은 순교자 시복시성운동의 일환으로 천주교대구대교구가 1970년에 봉헌한 성당입니다.

해가 심해지자 집과 전답, 고향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비교적 박해의 손길이 먼 경상도 교우촌으로 피난했다가 울산 장대벌에서 한낱한시에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세 분 순교자의 시신은 처형 직후 형장 근처의 동천 강둑 아래에 가매장되었다가 경주 산내면 진목정에 합장됐습니다. 그 후 1932년 5월 28일 감천리 묘지로 옮겨졌다가 다시 1962년 10월 25일 감천리 묘지의 성모상 앞으로 이장 됐습니다. 복자성당의 완공과 더불어 순교정신을 더욱 현양하고 본받고자 1973년 10월 19일에 세 분의 순교자 유해를 복자성당으로 모셨는데 이때부터 도심의 순례지로서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순교신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병인박해 100주년을 맞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1964년 4월 하순에 병인박해 순교자들 중 24위 시복운동을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 각 교구별로 순교자 기념성당을 건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대교구는 1964년 11월 9일 순교자 기념성당 건립기성회를 결성하고 각 본당별로 순교자 기념성당 건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병인박해 100주년이 되는 1966년 10월 17일에故 서정길 대주교님을 비롯한 300여명의 성직자 및 신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계획한 지 5년 만에 성당건물이 준공되었고 1970년 1월 1일 복자성당은 마침내 본당으로서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987년에는 관할구역명을 따라 신천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99년에 본당 설립 당시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다시 복자성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순교자 묘역에 대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여 순교자 묘소를 새로 단장하고 묘역 둘레에 십자가의 길을 조성했으며, 묘소 앞에는 넓은 잔디마당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성당 내부 제대와 감실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해 성 앙베르 뱀 주교, 성 모방 나 신부, 성 샤스탕 정 신부님의 유해 일부를 안치했습니다. 2010년 3월 14일에는 노후화된 성당 내외부 전체를 리모델링해 세 분의 순교자를 기리는 성당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한 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8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시어 이 세 분을 동시에 복자품에 올리셨습니다. **과거**

성당외형은 김대건 신부님이 중국에서 올 때 타고 온 배(라파엘호)를 형상화하였으며 본당의 주 출입구 전면 중앙에 위치해 있는 성역에는 1868년 9월 14일(음 7월 28일) 울산 동천 강변 장대벌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한 복자 허인백 야고보, 김종륜 루카, 이양등 베드로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각각 김해와 공주, 경상도 출신인 이 세 분의 순교자는 병인박해 때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삼위일체(三位一體)'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이기에 '신앙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 신비를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파악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우리”(창세 1,26)라고 표현하거나 하느님을 말씀, 영, 지혜라는 말로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예수님 탄생 예고 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루카 1,35)하고 삼위의 신비가 표현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라고 삼위께서 동시에 현존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태 28,19)라고 하심으로써 세 위격을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등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의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고, 325년 니체아 공의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인류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

법을 단계적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세상에 보내신 성부의 아들이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어 교회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사랑으로 일치시킵니다.

실제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고 한 본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한 교리는 인간 능력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신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전례 예식을 비롯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행위의 기본인 십자성호에서부터 영광송, 사도신경 등 모든 기도문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세례성사를 위시한 모든 성사 생활에서 표현됩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강림대축일 다음 주일에 삼위일체 대축일을 기념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간 구원 활동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서로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에도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길 역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이르는 것입니다. **▶▶▶**



“모든 교구민들이 우리나라와 교구를 위하여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치기를 권유합니다.”

-교구 총대리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



## 교구장 동정



- 1(수) \_ 신학생 입학미사  
(11시, 대신학원 대성당)

## 보좌주교 동정



2. 28(화) \_ 수직미사 (11시, 대신학원 대성당)
3. 2(목) \_ 성모솔숲마을 경당 봉헌식 (15시)

##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창세 1,10,12,18,21,25,31)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 중 '생태적 회개(217항)'와 관련하여 교구 생태환경 위원회에서는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하고 하느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태 평화운동을 전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2017년 3월 1일(재의 수요일) 부터 2018년 사순 시기까지 1년 동안 교구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

1. 손수건 들고 다니기 (한 장의 기적)
2. 개인 컵 들고 다니기 (한 잔의 기적)
3. 남은 자원 모으기 (오병이어의 기적)



## 일본의 순교사를 다룬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 영화로 <사일런스> 2월 28일 대개봉!

실종된 스승 찾아 박해시대 일본에 온 2명의 예수회 선교사 이야기  
10명 이상 단체관람 시 1인당 5천원에 티켓 구매 가능(단, CGV 현장예매)  
자세한 내용은 02)458-8010, 070)8707-2209으로 문의하세요

## 다 함께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어렵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하루에 내가 정한 금액으로 사순저금통을 채우겠습니다.”



## 미 사 안 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6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3월 6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3월 6일(월) 11:00 계산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3월 7일(화)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3월 6일(월) 11:00 죽도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3월 8일(수) 19:009 근학여고경당

### 대리구 소식

#### 2대리구 젊은이 기도 모임(Hello 하느님)

일시: 3,8(수) 19:30 미사 후

매월 둘째주 수요일

장소: 주교좌범어대성당 프란치스코성당

진행: 성바오로말수도회

준비물: 성경

문의: (010)2503-5185

#### 3대리구 성경대학 신입생 모집

낮반: (수) 14:00~16:00

저녁반: (수) 19:30~21:30

수강료: 1학기당 6만원

문의: 3대리구청, 641-5678

### 성소 | 피정

####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3,11(토) 16:00

장소: 예수회센터 이냐시오 카페

주제: 예수회의 영성

문의: 이인제 수사, (010)2874-9203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3,12(일) 14:00

장소: 부산 본원

대상: 선교 수도생활 관심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 예수성심시녀회 우애 피정

기간: 4,1(토)~2(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앓숨 분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9286-2247

#### 천호성지 주말 영성 피정

기간: 3,11(토)~12(일), 천호성지피정의집

주제: 우주 순례 에코 피정

지도: 문규현 신부

문의: 천호성지피정의집, (063)263-1004

#### 꽃동네 사순 침묵 피정

기간: 3,24(금)~26(일) / 1인실

장소: 꽃동네 영성원 / 피정비: 12만원

지도: 꽃동네 수도 사제

강사: 오웅진 신부

문의: (043)879-8500 / (010)8880-8286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3,15~18 / 3,26~29 / 4,1~3

4,6~8 / 4,17~19 / 4,20~22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 제주 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기간: 3,12~14 / 3,17~19 / 3,27~29

4,2~4 / 4,17~19 / 4,22~25(추자도)

신청: (064)756-6009 / (02)773-1463

### 교육 | 모집 | 기타

####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호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 서부지중해 크루즈 성지순례

창간90주년 특선상품 (1회 한정)

기간: 5,12(금)~22(월) 10박 11일

순례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경비: 내측 439만원, 발코니 499만원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설명회

일시: 3,18(토) 11:00 사전신청 필수

대상: 초4~중3 /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문의: (0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척추 관절 중점 병원

척척병원

WISE MAN Hospital - Spine & Joint

정형외과전문의 **곽은석(더모테오)**  
신경외과전문의 **신철식(요한)**

T. 053)718-7700 [www.wisemanhospital.com](http://www.wisemanhospital.com)  
대구 북구 읍내동 1208-2 (칠곡시장 맞은편)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보청기

김은연(세실리아) 최준우(미카엘)  
053)421-8588 (섬유회관 맞은편)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안 리네뜨

동성로에서 **범어대성당**  
**1층 상가로 이전**  
원장 **옥정희 (프란체스카)**  
강승우 (이냐시오)  
T. 427-8070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곽앤신원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낙지장어

낙지철판볶음 / 연포탕  
산이나고석쇠구이 / 장어매운탕  
40인 단체방 어린이놀이방 완비

T.053)941-7008 정창훈(안드레아)

신암동 대구공고 네거리

박익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익현(안드레아)**

☎ 053)252-1785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 강 검 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아우구스티노)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

## 행사 | 모임

### 교구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일시: 3.11(토) 10:30~16: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  
 주제: 장신호(요한보스코) 보좌주교  
 대상: 여성 신자 누구나 가능  
 문의: 교구 여성위원회, 245-6115

### 가나 피정 개설

기간: 3.25(토)~26(일)  
 장소: 연화리 피정의집  
 대상: 결혼한 지 5년 이하의 부부  
 참가비: 부부당 4만원(1인 2만원)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 바로로팔 공예초 전시회

기간: 3.7(화)~21(화)  
 장소: 동성로 바로로팔서원  
 주제: 부활의 빛과 평화  
 작가: 이해원(안나)  
 문의: 425-5185

## 교육 | 모집

### 센벳청년 성경 모임

장소: 샬트르성바로로수녀회 말씀살이  
 대상: 하느님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남·녀 미혼 젊은이  
 문의: (010)5925-5508

###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4.7(금) 17:30~9(일)

4박 5일: 3.20(월) 14:00~24(금)  
 8박 9일: 3.20(월) 14:00~28(화)  
 에니어그램: 4.7(금) 15:00~9(일)  
 문의: (031)946-2337~8

### 3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3.18(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강사: 유완식(바로로)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 SPC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 개강

개강: 3.28(화) 10:00~12:00  
 3.30(목) 19:00~21:00  
 시간: 주 1회 2시간(총 8주 16시간)  
 진행: 영성상담도구로 에니어그램 활용  
 문의: 254-2664 / (010)3228-3330

### 출을 통한 몸의 기도(8회기)

기간: 3.7~4.25 매주(화) 10:00~12:00  
 내용: 움직임으로 만나는 하느님  
 문의: 바틀로교육센터, (010)3360-9817

###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5기 원우 모집

개강: 3.20(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 장례지도사 무시험 국가자격증 취득교육

개강: 3.17(금) / 종강: 6.18(일)

주말반: (금) 18:30~22:20  
 (토, 일) 13:30~21:50(주 3회)  
 학력, 남녀 제한 없음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 여성가족부인정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21~6.20 매주(화)  
 자격: 전문대졸이상 졸업자  
 문의: 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 채용 | 안내

### 수지의집 사무국장 채용

마감: 3.10(금) 13:00  
 수지의집 공지사항 참조  
<http://www.susie1004.com>

###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간호사 채용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과  
 함께 근무 할 병동간호사를  
 모집합니다. / 문의: 670-5708

###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발아플랜**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호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종훈 (바로로)  
 피부질환 | 아토피 | 알레르기 | 시아미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미용 |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 달성군청)  
 1호선 심암역 3번출구 T.053) 651-8800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병원장 손기철 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문의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암수술 후, 암 재활도 전인병원  
**일반 검진 및 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지정 병원**  
 진료: 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과, 한방내과, 침구과

“하지정맥류인을 위한”  
**이연재 맥의원**  
 원장 : 이연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백합식품**  
 샬트르성바로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메주, 된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대구 053)257-1771  
 공창(자인) 053)857-2037  
 www.spcfood.co.kr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에페 6.7)  
 말씀을 기억합니다.  
**분도여행사**  
 해외여행 www.bundotour.com  
 ☎ 053-424-8525